

# 제1회 어린이 바다사랑 글짓기 공모전 수상 작품집

## 제1회 어린이 바다사랑 글짓기 공모전

어린이들이 바다를 체험한 느낌을 글로 표현함으로써 바다에 대한  
동경심과 탐구심을 키우고 미래 해양인으로서의 꿈과 이상을  
심어주는 해양문화행사 개최

- 공모기간 : '06. 9.15 ~ 10.15 (31일간)
- 참가대상 : 전국 초등학교 재학생 (1인1점)
- 주 최 : 해 양 경 찰 청
- 후 원 : 교육인적자원부
- 협 조 : 한국해양소년단연맹
- 접 수 : 해우리 해양환경교실(<http://haeuri.kcg.go.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 응 모 : 총 1,803점 [(저학년 566점(31%), 고학년 1,237점(69%)]
- 시 상 : 총 115점(금상 1, 은상 2, 동상 4, 가작 6, 입선 100, 특별상 2)



## 발 간 사

### ‘바다’는 미래의 희망입니다

먼저 「제1회 어린이 바다사랑 글짓기 공모전」에 참가해 주신 전국의 어린이 여러분께 따뜻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9.15일부터 10.15일까지 해양경찰청 해우리 해양환경교실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한 응모작품 모두는 여러분의 귀중한 체험이 고스란히 녹아든 참신한 작품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생한 체험담을 통해서 우리의 바다가 많이 훼손되어 있음을 절실하게 느꼈고 오염된 바다를 깨끗하게 되살려 새생명을 불어 넣어야 한다는 간절한 소망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

바다는 우리 인류가 존재하는 한 영원히 아끼고 보전해야 할 가장 소중한 보물이요 미래의 희망입니다. 특히 국토의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는 바다를 제대로 가꾸지 않고서는 잃어버릴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 권 동 옥

해양경찰청장 치안총감



무한한 자원과 생명이 숨쉬고 있는 바다를 우리의 후손에게  
당당하게 물려줄 수 있도록 늘 푸른 바다로 지켜야겠다는 마  
음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물고기가 죽으면 인류가 멸망한다』는 말처럼 자연은 인간  
을 탄생시켰지만 그 중의 어머니는 바로 바다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며, 바다가 건강할 때만이 우리 인간도 생명을 지켜나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번 공모전에 참가한 어린이 여러분께 감사드리  
며 바다를 사랑하는 그 고운 마음으로 우리의 희망인 바다와  
더욱 좋은 친구가 되어지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 축 사

좋은 체험은 몸과 마음에 곳곳이 배어들어 아름답고 향기로운 꽃을 피워냅니다. 어린이들의 체험을 통한 바다 사랑하는 마음을 접한 저로서도 그 향기에 벌써 취한 듯 합니다. 먼저, 어린이들의 체험에서 나온 바다 사랑하는 마음이 이렇게 주옥같은 글로서 결실을 맺어 여러 친구들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의미 있는 대회를 열어 주신 해양경찰청 권동옥 청장님을 비롯한 대회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발간된 문예집은 바다 사랑의 전령사로서 멀리 멀리 바다 사랑의 향기를 전파하고, 해양경찰청의 바다 질서와 평화 유지 역할에 더하여 어린이들에게 바다 사랑 마음을 고취하고 바다를 친구로 만들어 주고자 하는 숭고한 뜻을 오래도록 간직할 것입니다.

모든 생명은 바다로부터 왔습니다. 생명의 모태로서 바다는 우리를 항상 품에 두고 함께 호흡하고 있으며 어머니처럼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머니의 고마움을

## 이 정 화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총재



잊고 지내듯 바다에 대한 고마움을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육지에서 얻으며 생활하듯 미래는 바다에 많이 의존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지구 생명의 조절자로서, 자원의 보고로서 바다는, 특히 환경 문제로 오염되면 생명들이 살 수 없게 되며 지구가 아프게 됩니다. 여기에서 특히 바다 사랑하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바다와 친구가 되어버린 어린이들. 이번 글짓기 대회를 계기로 바다가 우리의 생활속으로 더욱 더 가까이 왔음을 느낍니다. 바다 친구와 함께 놀았던 좋은 추억, 글을 쓰면서 오래 오래 생각하였을 바다 친구. 여러분들이 바다와의 우정을 오래도록 간직하고 옆 친구들과도 바다와의 우정을 함께 하길 바랍니다.

끝으로 이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심사평

해양경찰청에서 전국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바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일깨우는 글짓기 공모전을 연 것은 대단히 참신하고도 뜻 깊은 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칫하면 좁은 국토에만 한정될 수 있는 어린이들의 상상력을 세계를 향한 가교로서의 바다에까지 확장시키고, 또 하나의 국토이자 삶의 터전으로서의 바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어릴 적부터 키워주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해양경찰청의 참신하고 뜻 깊은 의도에 부응이라도 하는 듯 <해우리 해양환경교실>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만으로도 전국 각지에서 무려 1,800 여 점의 많은 글이 접수되었고 이 중 예심을 통과한 30 편의 작품에 대해 본심을 실시하였습니다. 예심을 통과한 글들의 수준은, 요즘 어린이들이 글쓰기에 소홀하고 우리 말 구사능력이 떨어지리라는 심사위원들의 예상을 깰 정도로 안정되고 심지어는 놀랄만한 정도로 높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백일장이 아니라 공모전이어서 가필과 퇴고가 가능하고 맞춤법 등에 있어서는 다른 가족들의 도움도 있었으리라는 점을 감안해도 우리 어린이들의 글쓰기 능력에 대한 심사위원들의 걱정은 기우였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작품들의 내용에 있어서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본심에 올라온 작품들을 보면 ‘우리 바다의 아름다움과 소중함을 새롭게 인식할 수 있는 소재’라는 폭넓은 공모취지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작품들이 바다의 아름다움과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대비시켜야 한다는 일종의 상투적 강박성에 사로잡혀서 지나치게 상식적이고 교훈적인 내용으로 일관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설사 그러한 내용을 담더라도 좀더 자신의 경험과 창의

## 김 명 인

인하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교수, 평론가



적 상상력에 입각한 ‘자기만의 눈’을 가진 글을 쓸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금상인 ‘금빛바다상’에 선정된 마산 삼계초교 허혜경양의 「젊은 어부」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바다의 소중함을 깨닫고 새롭게 어부의 길을 걷겠다고 나선 젊은 삼촌의 굳은 의지와 희망을 잘 그려냄으로써 더 이상 우리의 바다와 연안어업이 낙후된 상태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새롭고 진취적인 삶의 현장으로 되살아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일깨우기에 모 자람이 없는 훌륭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외의 은상, 동상, 가작, 특별상 등 상위 입상작들의 경우도 자신이 체험한 자신만의 바다 이야기를 진솔하고 아름답게, 때로는 어린이다운 참신함으로 잘 그려낸 작품들이었습니다.

이번 수상자들의 입상을 축하하며, 아무쪼록 이번 수상자들이 앞으로도 우리 바다를 더욱 사랑하고 바다를 넘어 세계로 힘차게 뻗어나가는 동량재들이 되기를 바라고, 또한 지금의 글솜씨를 더욱 발전시켜 우리 문학과 학문의 미래를 책임져 나가는 미래의 문사들이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심사위원을 대표하여



# 목 차

• 발간사 .....	02
• 축 사 .....	04
• 심사평 .....	06

## 고 학 년 부

### • 금상

젊은 어부 / 마산 삼계초6 허혜경 .....	13
---------------------------	----

### • 은상

바다를 빌렸어요! / 인천 굴포초4 선지은 .....	17
-------------------------------	----

### • 동상

사랑해요! 제주바다 / 제주 새서귀포초4 오현지 .....	21
꽃게의 머릿속 바다 / 군산 신시도초5 박민지 .....	24

### • 가작

아빠의 바다 / 진해 도천초6 김지현 .....	30
금태가 된 명태 / 속초 청대초6 정연비 .....	33
내 마음속에서 숨쉬는 새만금 / 대구 성산초6 박수현 .....	37



## • 특별상

내 친구를 살려주세요 / 태안 근흥초4 김도희 .....	41
---------------------------------	----

## 저학년부

## • 은상

나의 갯벌 친구들 / 홍성 서해삼육초2 장우형 .....	47
---------------------------------	----

## • 동상

바다사랑 뉴스 / 부산 동삼초3 김현진 .....	49
이어도를 사랑해요 / 제주 중앙초2 김지수 .....	51

## • 가작

하얗은 바다 지킴이 / 인천 동명초1 김태웅 .....	54
갯벌 해수욕장에서 / 고창 성내초2 정고은 .....	58
바다의 보물을 간직한 소중한 갯벌 / 인천 담방초3 채승범 .....	60

## • 특별상

바다의 소중함 / 군산 군산남초3 강민구 .....	63
------------------------------	----

• 입상자 명단 .....	66
----------------	----



# 고학년부

- 젊은 어부/허혜경
- 바다를 빌렸어요!/선지은
- 사랑해요! 제주바다/오현지
- 꽃게의 머리속 바다/박민지
- 아빠의 바다/김지현
- 금태가 된 명태/정연비
- 내 마음속에서 숨쉬는 새만금/박수현
- 내 친구를 살려주세요/김도희





## 점 은 어 부

마산 삼계초등학교 6학년  
허 해 경

우리 작은 외삼촌은 새내기 어부입니다. 가족들의 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어부'라는 임명장을 수여 받았습니다. 그러기까지 삼촌은 가족들의 걱정과 실망과 안타까운 마음을 잘 참고 이겨내며 수없이 바다를 향해 다짐했을 것입니다.

우리 외삼촌의 꿈은 항해사였습니다. 경남 고성군 동해면의 작은 갯마을에서 태어난 외삼촌은 넓은 바다로의 꿈을 어릴 때부터 가슴에 키웠다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작은 외삼촌은 할아버지를 따라다니면서 노를 젓고,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는 법을 배웠습니다. 여름에는 어린 홍합을 달고, 겨울에는 그 홍합을 뺏습니다. 할아버지 어깨 너머로 찢어진 그물을 손질하는 것까지 자연스레 보고 배웠습니다. 바람이 심한 날에는 뒤집힐 듯한 외할아버지의 초라한 목선이 무서워 수없이 바다를 향해 외쳤답니다. 이 다음에 으리으리하고 멋진 배의 항해사가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외할아버지 또한 거친 파도, 따가운 햇살, 비릿하고 역겨운 갯내음을 자식에게만은 물려주지 않으려고 열심히 파도와 싸웠고, 바다에



할아버지의 모든 시간을 걸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바다는 할아버지의 마지막 희망이고 탈출구였던 것입니다.

할아버지의 그런 바람은 여섯이나 되는 자식들을 다 도시의 대학으로 유학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작은 외삼촌은 어렸을 때부터 꿈꾸어 왔던 먼 바다에 대한 무한한 동경을 현실로 이루기 위해 한국해양대학에 진학을 하였습니다. 외삼촌이 일급 항해사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니다.

외삼촌이 하얀 제복을 차려입고 첫 항해를 하던 날, 외할아버지는 좋아서 온 동네 잔치를 벌였습니다. 어쩌면 오랜 세월 가슴에만 묻어왔던 외할아버지의 꿈은 삼촌을 통해 현실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외삼촌은 흰 제복을 벗고, 중국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삼촌의 마음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삼촌이 무슨 마음으로 중국으로 건너갔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가족들에게 엄청난 실망을 안겨주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 어떤 파랑에도 아랑곳 않던 할아버지는 삼촌이 물고 온 태풍에 그만 마음을 꺾이고 말았습니다. 할아버지의 분노와 실망은 오래오래 가족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했습니다.

중국에서 가끔 소식만 전해오던 외삼촌은 제작년에 한국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삼촌이 오시고 몇 달 후에, 중국에서 외숙모가 오셨습니다. 외삼촌은 결혼식을 올리고, 외할아버지 댁에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리고 외삼촌을 쫓 빼닮은 귀여운 동생이 태어났습니다. 할아버지도 그제서야 노여움을 풀고, 삼촌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외할아버지의 가업을 이어받은 삼촌은 동네에서 소문난 새내기 어부입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바닷일을 하십니다. 이젠 할아버지 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제 살만큼 살았다. 동훈이한테 이 집과 어장, 그리고 내 평생 먹여 살려준 저 바다를 맡기고 갈 수 있어서 마음이 편하다.”

“아버지, 그 바다는 제가 어릴 때부터 손도장 찍어 놓았지 않습니까? 아버지도 그때 이미, 저를 대대로 이어 온 가업을 물려줄 후계자로 점찍어 놓았지 않습니까?”

“그래 그래 니 말이 맞다. 내 그런 마음을 한 구석에 붙들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아버지의 바다는 제가 책임지고 지키테니, 오래오래 건강하게만 사십시오.”

이젠 어디에서도 대나무처럼 꼳꼳한 할아버지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소금에 절인 듯한 고집과 삼촌에게 향한 섭섭한 생각들은 외삼촌을 마음으로 받아 들이던 날, 해풍에 실어서 수평선 멀리멀리 떠나 보낸 것을 우리는 압니다. 대신 할아버지는 예전에는 볼 수 없었던 부드러움과 너그러움을 지니셨습니다.

외할아버지는 지금도 뒤통이 닳은 목이 긴 장화를 신고, 선착장 뱃머리로 나가십니다. 할아버지는 아직도 일러두지 못한 뱃일이 기억나실 때마다, 외삼촌에게 하나하나 가르쳐 주려는 것입니다.

외할아버지를 닮아서 부지런하고, 강인하고, 꼳꼳한 외삼촌이 할아버지의 바다를 대신 지키게 되어서 다행입니다. 젊은 어부의 꿈은



는 낚싯대와 릴을 던지며 열심히 낚시에 빠졌다. 동생들은 물만 바라보는 게 지루하다며 물 위에 돌맹이를 던져 물수제비를 뜨는데 곧 아빠께 꾸중을 들었다. 고기가 놀라 도망간다는 것이었다. 낚시에 빠진 사람들은 함께 온 가족이 말하며 떠드는 것도 싫어해서 혼자 오려고 한다는 걸 아빠에게 들은 적이 있었다. 물만 쳐다보기가 너무 심심해서 옆자리 아저씨들은 얼마나 잡았나 구경하러 이곳 저곳 기웃거리는데 나는 곧 눈살을 찌푸리고 말았다. 낚시터가 온통 쓰레기장이었기 때문이다. 조금이라도 구석진 곳은 물이 뿌옇게 흐려서 아예 안이 보이지 않았다. 막대기로 휘저어 보았더니 음식찌꺼기, 비닐, 강통들이 수없이 올라오고 낚시 바늘과 낚시줄이 엉켜 끝이 없이 이어졌고 고약한 냄새도 났다. 이런 곳에서 고기를 잡아 과연 음식으로 먹을 수 있을까? 도저히 그럴 수 없을 것 같았다. 갑자기 아빠가 미워졌다.

낚시를 좋아하시는 아빠 같은 사람이 물속을 이렇게 오염시켰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아빠 같은 사람이 아니라, 아빠가 지난 번에 오셨을 때 버린 쓰레기 일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고약한 냄새를 피해 나는 돛자리에 누운 채 빨리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빨리 가서 깨끗한 수돗물로 샤워하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사람들이 오염시킨 물이 48시간만 지나면 다시 자기 입으로 들어 간단다.’라고 하신 선생님의 말씀이 떠올라 더욱 찝찝했다.

“고기를 낚는 게 아니라 쓰레기를 낚는 게 어때요?”





“엄마, 환경보호에는 낚시라는 취미가 절대적으로 나쁜 것 같아요.”

“나도 느낀건데 정말 심하다. 환경오염 시키는 사람은 낚시꾼이 1위 라고 생각해.”

우리는 아빠를 향해 한 마디씩 해댔다.

“너희도 보듯이 아빠는 내가 버린 것들 모두 치우고 오는 데 . . . . .”

“아빠, 물속에 던져 넣은 떡밥은 못 치우고 오잖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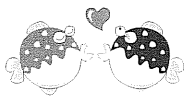
“그건 별로 오염 안 될 거야. 고기들이 다 먹어치우니까.”

“물속에 들어가서 보셨어요? 쌓여서 썩으니까 물이 그렇게 더럽지요.”

우리가족은 도시락을 담아온 비닐봉투에 우리주위에 있는 쓰레기를 주워 담았다. 오래되고 냄새가 심한 것은 차마 줄지 못하고 그 중에서 깨끗하고 물기 적은 것으로만 골라 담았다. 짧은 시간이었는데도 벌써 한 가득이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멀리 보이는 바다를 보며 곁으로 보기엔 평온하기만 한데 알고 보면 푸른 물과 깨끗한 바다생물만 가득 있는 미래 식량의 보고가 아니라 오염되고 더럽혀진 버려진 양심이 가득 찬 곳이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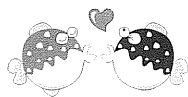
낚시터가 또 다른 자연 파괴의 주범이라는 것을 어른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나라에서도 낚시를 할 수 있는 곳을 지정해서 관리하고 엄격하게 통제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제는 어떤 규제가 무서워서



지키며 살아야 할 때는 아니다. 환경오염은 우리 인류가 죽고 사는 문제이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우리 후손들의 것이라는 얘기가 있다. 우리들은 후손들에게 이 지구를 빌려 쓰고 있다는 뜻 일 것이다. 바다도 마찬가지다. 말없이 흘러가는 바다를 보며 어떻게 하면 깨끗한 바다를 지킬 수 있을까 한참 고민했다. 우리에게 큰 꿈과 희망을 갖게 해주고 풍성한 식량자원을 말없이 키워주는 바다, 더럽히고 상처 내는 일 없이 잘 가꾸고 보호해야겠다는 마음이 간절한 하루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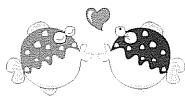
## 사랑해요! 제주바다

제주 새서귀포초등학교 4학년

오현지

내가 사는 곳은 바다와 그리 멀지 않은 마을입니다.

우리 할머니는 지금은 나이가 드셔서 농사일만 하시지만 내가 아주 어렸을 적에는 바다에 뛰어들어 소라, 전복을 캐던 해녀입니다. 할머니는 바다를 아주 좋아하십니다. 지금도 자주 우리 손을 잡고 바다에 가십니다. 할머니와 바다에 가면 기분이 상쾌합니다. 금빛, 은빛, 햇살이 바다와 놀려고 내려와 눈부시게 반짝거리는 모습도 아름답지만 병풍처럼 바다 주위를 감싸는 바위들이랑 오래된 소나무는 바다와 어우러져 감탄을 쏟아내게 합니다. 빛깔은 또 왜 그리 고울까요? 청옥, 연옥, 비취, 에메랄드, 오팔 등등 세상에 나와 있는 아름다운 푸른색, 초록색 계열보석들은 바다로 다 떨어져 더욱 반짝거립니다. 내가 사는 곳은 제주도 인데 제주 바다가 아름답다는 사실은 아마 전 국민의 상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곳을 다녀갔던 관광객들의 한결같은 이야기는 바다와 밀접합니다. ‘바다와 보낸 제주여행’은 관광객들에게 큰 감동을 줍니다.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청정바다를 가슴에 품고 다들 올라옵니다. 제주의 푸른 바다가 아



주 좋아서 제주도에 정착을 하고 사는 사람들도 많고, 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주를 사랑하고 아끼는 만큼 관광객이나 도민 모두가 바다사랑을 실천하고는 있을까요?

얼마 전 할머니와 바다에 갔는데 할머니는 폭~폭 한숨을 쉬었습니다.

“예전에 바당(바다)이 아니여! 큰 보말도 없고 미역도 하영(많이) 없어져 감썰(간다). 이젠 바당에 자꾸 못 오키여(못 오겠다)”

바다를 휘 둘러보니 전에 없이 돌이나 바위에 하얀 테가 둘러져 있고 쓰레기가 곳곳에 보였습니다.

“할머니! 왜 이래요? 바다가 달라지고 있어요!”

“사름들(사람들) 생각 없이 버린 쓰레기영(쓰레기와) 밭에서 독한 소독해 불민(소독해버리면) 그 독한 약물이 여기로 흘러 흘러와서 바당도(바다도) 죽어버리는 거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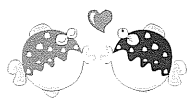
할머니와 바다에 어지러이 널려진 쓰레기를 주었습니다.

빈 술병, 과자봉지, 빈 강통 등등…… 자기들이 먹고 간 쓰레기를 놔두고 가는 암체들이 지금도 많이 있다는 게 실망스러웠습니다.

제주를 사랑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우리는 행복합니다.

제주도를 찾는 관광객이나 제주 특별자치도민 모두가 제주도 구석구석을 사랑했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산이나 공원 바다를 찾았을 때 쓰레기를 놔두지 않고 꼭꼭 챙겨가고 남아있는 쓰레기까지도 치워줄 줄 아는 배려와 사랑하는 마음을 보여준다면 우리나라의 영토 안에 있는 모든 자연이 더욱 아름답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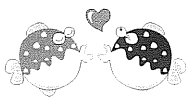


않을까요?

제주의 바다가 항상 아름답기를 바랍니다.

오래오래 가까이에서 사랑하겠습니다.





## 꽃게의 머리속 바다

군산 신시도초등학교 5학년

박민지

나는 꽃게입니다.

나의 집은 갯벌입니다. 갯벌에는 내 친구 갯지렁이도 있고, 가끔 같이 노는 조개도 있습니다. 또 청둥오리가 매일 놀러오고는 합니다.

“ 짹짹 - ”

청둥오리들이 오고 있나 봅니다. 청둥오리들의 울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갯지렁이와 조개도 청둥오리를 마중 나왔습니다.

“어? 오늘을 좀 늦었네?”

갯지렁이가 능청스럽게 말하였습니다.

“아, 오늘 오다가 이상한 배를 구경하고 오느라고”

청둥오리가 호들갑을 떨며 대답하였습니다.

“이상한 배?”

우리가 입을 모아 말하였습니다.

“응, 있잖아 그 배는 물고기를 잡는 배였는데, 물고기는 잡지 않고 이상한 물을 바다에 마구 버리고 있었어.”



청둥오리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친구들은 고개를 가우뚱하였습니다.

호기심 많은 나는 청둥오리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물고기를 잡지 않으면 좋은 것 아니야? 우리 친구들이 잡혀가지 않고 좋잖아. 마음씨 좋은 사람들인 가봐.”

그러자 청둥오리가 고개를 휘휘 저으며 말하였습니다.

“아니야, 그 사람들이 이상한 물을 바다에 넣으니까 물고기들이 모두 바다 위로 떠올라서 괴로워 하다가 움직이지 않았어. 나중에 다른 물고기에게 물어보니까 모두 병에 걸리거나 죽었다는 거야. 자기도 지금 숨쉬기가 힘들다고 하더라고.”

생각해 보니 끔찍하여 모두 말을 잊지 못하고 서로 얼굴만 쳐다보았습니다. 청둥오리는 놀란 친구들을 뒤로 하고, 먹이를 찾아 저 쪽으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걱정스러운 하루가 지나고, 아침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뜬 나는 어느 때처럼 아침을 맛있게 먹고 친구들을 만나러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갯벌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기 멀리서 악취가 나고 있었습니다.

모두들 일어나서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큘큘, 이게 무슨 냄새지?”

“처음 말아보는 냄새야.”

“으으... 정말 고약해... 누가 쓰레기를 함부로 버린 거야?”

모두 코를 쥐어 잡고 냄새가 나는 곳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



나 냄새가 나는 곳은 아무리 갯벌을 뒤져보아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상하네... 그럼 어디에서 나는 냄새지?”

모두들 의아하게 생각하며 말하였습니다.

그 날 점심. 어느 때와 같이 청둥오리들이 몰려왔습니다. 나는 청둥오리에게 말하였습니다.

“있잖아, 오늘 아침에 우리 갯벌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어. 그런데 냄새가 나는 곳을 아무리 찾아보아도 찾을 수가 없었어.”

그러자 청둥오리가 고개를 가우뚱거리며 이야기 하였습니다.

“이상하네... 내가 오면서 지나온 갯벌도 악취가 나던 걸? 그 갯벌에 사는 친구들이 모두 코를 움켜지고 있었어. 그러나 저러나 저번에 본 배를 또 보았는데 이번에는 더 많은 물을 버리고 있었어. 갯바위 할아버지 말씀이 물고기들이 모두 아파서 앓아누웠다는 거야. 우리 청둥오리 중에도 날개가 잘 안 펴져서 먹이를 구하지 못하고 고생하는 친구도 있어.”

나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생기고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꼈습니다. 갯바위 할아버지도 나와 똑같이 느끼신 걸까요? 갯벌에 사는 생물들을 모두 모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저기에서 모여든 생물들은 웅성웅성 떠들어 댔습니다.

“자, 모두 조용히 해주세요.”

갯바위 할아버지께서는 어두운 얼굴로 꾸짖듯이 말씀하셨습니다.





“요 근래, 우리 갯벌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하여 서로 의논했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갯벌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고, 물고기들이 아프고, 조개들이 껍데기를 벌린 채 죽어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 지 의견들을 말해 보세요.”

나는 손을 번쩍 들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청둥오리가 그러는데, 이상한 물을 사람들이 버린대요. 그 후로 갯벌에 안 좋은 일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 물이 무슨 물인지 알아 보아야 할 것 같아요.”

갯바위 할아버지가 중얼거리듯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상한 물? 그런 일이 또 일어나지는 않을 텐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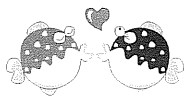
“무슨 말씀이세요?”

갯지렁이가 궁금해 죽겠다는 얼굴로 할아버지의 말을 가로챘습니다.

“아니다. 나 혼자 한 소리야. 자 다들 집으로 돌아가도록 해요.”

갯바위 할아버지께서는 더 이상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갯벌 친구들은 서로 얼굴만 쳐다보다 각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모두가 집으로 돌아간 후 갯바위 할아버지는 근심어린 눈으로 먼 바다를 바라 보셨습니다. 갯바위 할아버지는 생각하기조차 싫은 옛날의 일이 떠올랐습니다.

옛날, 갯바위 할아버지는 지금보다 훨씬 크고, 할아버지의 몸에서 많은 물새들이 보금자리를 틀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물새들의 알이 깨어나 자라는 것을 큰 기쁨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욕심 많은 사람들이 갯벌을 없애고 큰 공장을 짓고 더러운 물을 흘려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물고기들이 허연 배를 들어낸 채 죽어가고, 조개들도 껍데기를 힘없이 벌린 채 기력을 잃어갔습니다. 얼마 시간이 지나자, 갯벌은 죽은 땅이 되어 물새들도 모두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갯바위 할아버지는 고독하고 쓸쓸한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이렇게 살아있는 갯벌이 되기까지는 무척 많은 시간과, 눈물겨운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마음 좋은 바다는 그런 욕심 많은 사람들을 버리지 않고 사람들에게 새로운 갯벌을 선물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제서야 바다의 넓은 사랑을 깨닫고 바다에게 감사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갯바위 할아버지가 과거에 잠겨계신 모습을 보며 나는 슬픈 마음이 들었습니다. 갯바위 할아버지는 며칠간 고통에 찬 소리를 내시더니 나를 불렀습니다.

“꽃게야, 너에게 부탁할게 있다. 내가 해야 하지만, 나는 이미 너무 늙었어. 네가 이 일을 꼭 해준다면, 갯벌은 다시 생명을 얻을 거야.”

나는 두 주먹을 불끈 쥐고 갯바위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떤 일이라도 바다와 갯벌을 살릴 수 있다면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꽃게야, 이 일은 너 같이 작은 몸으로 하기에는 벅찰지도 몰라. 너는 갯벌을 벗어난 적이 없지. 바다 멀리 까지 갈려면 힘이 들 거



야. 너의 등껍질이 갈라지고, 집게발이 부러질 지도 몰라.”

“할아버지, 그래도 좋아요. 제가 한번 해 보겠어요.”

그 날 밤, 등껍질을 단단히 동여매고 저 멀리 바다를 향해 헤엄쳐 갔습니다. 바다 속 깊이 가는 동안 급물살도 만나고, 해초에 몸이 감기기도 했습니다.

너무 힘이 들어 포기할까 생각했지만, 갯벌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을 갯바위 할아버지와 친구들을 생각하면 포기 할 수 없었습니다.

그 날은 햇살이 무척 좋았습니다. 그 곳은 내가 여태 못 본 너무 깨끗한 곳 이었습니다. 수정처럼 맑은 물거품위에 바다의 마음이 있었 습니다.

“어려운 길을 왔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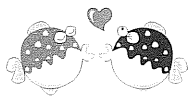
그 목소리는 마치 인자한 어머니 목소리 같았습니다.

“내 너를 보아 한 번 더 바다와 갯벌을 버리지 않음마. 하지만, 더 이상 바다와 갯벌을 살리기는 힘들 거야. 욕심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운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았으면 좋겠구나. 바다와 갯벌이 죽으면 사람들도 위험해 진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다.”

나는 바다의 마음을 뒤로하고 내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갯벌 친구들이 모두 마중을 나와 나를 안아 주었습니다.

그 후로 나는 사람들이 바다의 사랑을 받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바다의 마음은 모든 생물의 영원한 어머니입니다.



## 아빠의 바다

진해 도천초등학교 6학년

김지현

나는 부산에 사는 이모 집에 갈 때마다, 웬지 내가 촌놈 같다는 생각이 든다.

끝이 보이지 않는 높은 건물, 복직대는 사람들, 대낮에도 도로를 짝 채우다 못해 밀리는 차들.. 그 기세에 눌러 움츠려 드는 것도 잠시 내가 사는 이곳이 한없이 그리워진다.

봄이면 벚꽃 축제가 열리고, 작지만 깨끗하고 공기 좋은, 해군의 도시 진해.. 바로 내가 사는 곳이다.

해군이신 아빠께선 아주 많은 시간을 바다에서 보내신다.

때문에 보통의 아이들이 엄마를 부르며 우는데 내 동생과 나는 아빠를 부르며 울었다고 한다. 초등학생이 되어선, 밥을 먹을 때에도, 공부시간에도, 친구들과 놀 때도 온통 아빠생각 뿐이었을 때가 있었다.

내게 바다는 그리움이고 포근함이다.

바다를 생각하면 아빠가 떠오르고 아빠가 오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에 설레기도 한다.



요즘, 가을 바다에선 전어가 한창 많이 잡힌다고 한다. 그래서 어민들이 출입이 금지된 군사지역까지 들어와 고기를 잡다가 벌금을 물기도 하고 해양경찰에게 쫓기는 장면이 뉴스에 나오기도 한다.

이처럼 어민들에겐 경찰에 쫓기면서도 고기를 잡아야 하는 생활의 터전이고, 내겐 아빠를 향한 막연한 그리움이다.

사람마다 다른 의미를 두지만 바다가 우리 모두에게 주는 혜택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작년 여름, 이곳 진해에선 파리 폐의 습격을 받았다.

내가 사는 곳과 많이 떨어진 곳이지만 모기 한 마리도 귀찮고 무서운 내겐, 파리 폐의 습격은 생각만 해도 너무 끔찍한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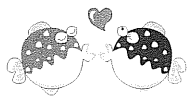
신 항만 매립이 한창이던 작년.. 진해 앞 바다를 메우면서 고인물이 썩어 해충들이 살기 좋은 환경이 된 것이다. 그 마을의 식당이나 횃집은 집집마다 살충제를 쌓아두고 뿌려도 사라지지 않는 새까만 파리들 때문에 장사를 할 수 없어 문을 닫아야 했다.

하지만, 여러 조사기관에서 조사를 하고 대책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올해에도 파리 폐의 습격을 피할 수 없었다.

바다를 오염시키는 오염물질의 대부분은 땅에서 만들어 진다고 한다.

생활하수나 공장의 폐수로 인한 바다 오염, 폐 그물, 그리고 무분별한 개발.. 작년과 올해에 이은 파리 폐의 습격처럼, 우리는 우리 몸에 바로 전달되는 환경의 위협에만 민감해 지는 것 같다.

매일 매일 흘러보내는 생활하수나, 쓰레기봉투를 가득 채운 일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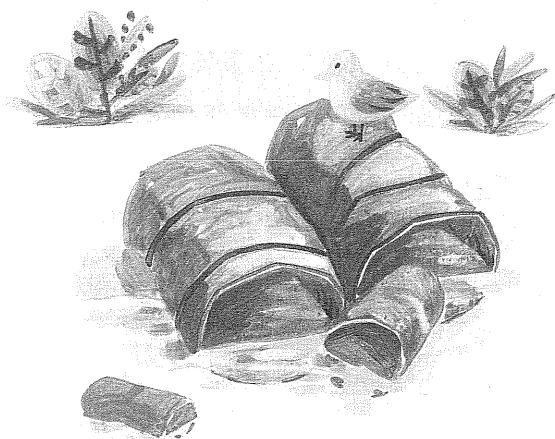
용품에는 무관심 하면서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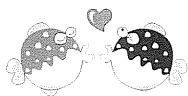
우리는 바다에서 많은 먹거리를 얻고, 그 곳에서 계절을 즐기고 추억을 만들고 행복을 만든다. 그런 바다가 영원히 우리 곁에 있길 바란다면 우리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부터 바다사랑을 실천해야 한다.

우리 스스로 지키지 않는 바다.. 그 바다 또한 우리를 지켜주지 않을것이기 때문이다.

오늘은 15일 간의 출동을 마치고 아빠가 오시는 날이다.

아빠의 팔을 베고 누워, 돌고래가 뛰어 오르고 은빛 물결이 아름답게 빛나는, 맑고 깨끗한 바다 이야기를 듣고 싶다.





## 금태가 된 명태

속초 청대초등학교 6학년

정연비

해마다 여름방학 때면 우리 가족은 ‘바다살리기 국민운동 강원본부’에서 주최한 쓰레기 줍기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우리 고장에서 제일 많은 피서객이 모이는 속초 해수욕장으로 주마다 한번씩 쓰레기 줍기 봉사활동을 갔다. ‘역시, 속초는 속초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피서객들이 많이 찾아왔다. 하지만 피서객이 많이 찾아온 것만큼 버려진 쓰레기도 장난 아니게 많았다.

첫째 날 속초 해수욕장에 갔을 때 나는 이런 생각을 했다. ‘저걸 우리가 다 주워야 한다니, 정말 힘들겠다. 엄마는 왜 하필 이렇게 힘들고 더러운 봉사활동을 택하셨지’ 하고 말이다. 쓰레기를 주우며 지켜보니 더욱 엄마가 미워졌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정말 신나게 잘 놀고 있었고, 나도 놀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꼭 참고 내 할 일을 했다.

그날 내가 주운 쓰레기들 중에 삼분의 이는 담배꽂초와 페트병이었고, 나머지는 음식물 쓰레기였는데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할 때가 제일 힘들고 어려웠다. 신나게 노는 사람들에게는 맛있는 음식이었



졌지만 우리에게는 정말 더럽고 냄새나는 악질 쓰레기였던 것이다.

봉사활동에서 생긴 기분 나쁜 경험은 그것만이 아니었다. 피서 온 사람들이 텐트 안에 들어앉아서는 우리보고 자기네 쓰레기를 가져 가라고 내놓을 때는 “우린 아줌마네 개인 청소부가 아니예요.”라고 소리치고 싶었다. 하지만 우리 고장의 해수욕장이 깨끗한 백사장과 맑고 푸른 바다로 남게 되길 바라며 내가 참았다.

첫째 날 봉사활동이 끝나고, 나는 엄마에게 물었다. 왜 하필 쓰레기 줍기 봉사활동이냐고. 엄마께서는 말씀하셨다.

“연비는 우리 고장이 어떤 도시인 것 같니?”

“관광도시요.”

“그래. 맞았어. 하지만 우리 고장이 관광도시이기 전에는 유명한 어업도시였지.”

“속초와 가까운 고성이란 곳은 한 때 겨울철에 명태가 엄청나게 잡혔지. 그래서 어촌이었지만 사람들 주머니가 늘 넉넉했다. 우스개 소리로 지나가는 강아지도 입에 만 원짜리를 물고 다녔단다. 하지만 요즘은 거의 명태가 나지 않아서 명태 이름이 값비싼 금태로 바뀌어 야할 판이지.”

“연비는 왜 우리 고장에 그렇게 많이 잡히던 명태가 안 나는지 아니?”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원래 명태는 아주 차가운 물에 사는 한랭어종이란다. 그런데 요즘은 동해안의 수온이 높아져서 시베리아 쪽으로 다 옮겨 갔다는구





나. 우리 어민들에게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

“우리나라에 기후 변화가 생긴 거야. 지구는 점점 뜨거워지고 있어.”

“이런 현상을 지구온난화라고 하는데, 앞으로 우리 인류에게 큰 위협이 되는 일이지. 벌써 남극과 북극의 빙하가 많이 녹아버렸어. 그 이유가 바로 자연환경의 오염과 파괴 때문에 생기는 거란다.”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가꿔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야. 우리 고장의 앞 바다나 산부터 깨끗하게 청소하면 점차 지구가 깨끗해지지 않겠니? 여기 놀러온 사람들도 우리를 보면, 자기네 집에 돌아가서 우리처럼 자기 고장을 깨끗하게 치우겠지. 그러면 점차 우리나라도, 전 세계도 함께 깨끗해질 거 아냐. 그리고 다시 우리 바다에도 명태가 돌아올테고, 그 때가 되면 우리 어민들이 덩실덩실 춤을 추겠지.”

“명태가 금태로 불리지 않고 제 이름 그대로 쓰이는 그 날을 위해 우리 모두 노력하는 것이 미래를 위한 우리의 의무이자 권리이기도 해.”

그날 나는 엄마 말씀을 듣고 쓰레기 봉사활동을 선택하신 이유를 잘 알 수 있었고, 오늘 내가 우리의 바다를 위해 한 일이 무척 뿌듯했다. 그까짓 더러운 음식을 쓰레기도, 아줌마의 몰염치한 행동도 다 용서해 주기로 했다. 그런 생각이 들자 일주일 내내 봉사활동이 힘들지도 않고 즐거웠다. 물론 더워서 땀꺼나 흘리긴 했지만 말이다.



나는 중학생이 되는 내년 여름에도 올해보다 더 많은 쓰레기를 주울 것이다. 하지만 내년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집 방안 청소하듯이 우리의 자연도 깨끗하게, 소중하게 다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명태야! 어서 너희 집 앞마당으로 돌아와 줘.”





## 내 마음속에서 숨쉬는 새만금

대구 성산초등학교 6학년

박수현

초등학교 3학년, 바다는 알아도 갯벌은 모르던 때, 대구환경운동연합에서 가는 2003 어린이 여름 자연나들이로 우리가 간 곳은 변산반도 새만금이었다. 우리를 인솔해주신 선생님께서는

“갯벌은 밀물과 썰물의 차이로 인해 드러나는 갯가의 넓고 평평하게 생긴 땅으로 연안 습지의 일부분이에요. 갯벌은 많은 생물들이 숨쉬는 곳인데 새만금 간척 사업으로 인해 그곳이 사라질 지도 몰라요.” 라고 우리에게 설명하셨다. 하지만 나는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 때는 바다의 밀물과 썰물이 무엇이고 연안 습지가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이었다. 갯벌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들으며 버스타고 6시간이라는 긴 시간을 달려 새만금에 도착하였다.

새만금은 원래 섬이었고 최초의 갯벌이며 공사 때문에 물이 못 들어오게 막아놓아 없어질 수 있다는 것이 선생님의 설명이었다.

‘이렇게 아름다운 곳을 없애려고 하다니…….’

갯벌에 대해 아는 것도 많이 없고 잘 모르는 나였지만 새만금이 품고 있는 농게, 따개비, 갯지렁이, 낙지, 조개 등……. 간척사업을



주장하고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간척사업을 방해하는 눈엣가시 같은 하찮은 존재로 밖에 보이지 않을 존재들이겠지만 내게는 작고 여린 소중한 수많은 생명체들로 느껴졌다.

새만금 사업은 10년 넘게 진행되어오고 있다. 공사가 시행되었다가 중단되고 다시 시행되고 중단되기를 10년째 반복하고 있는 이 간척 사업은 다양한 얼굴을 하고 있다고 느껴졌다. 한편으로는 한반도 지도를 바꿔야 하는 대규모 공사이지만 한편으로는 지구가 소중한 가꾸어온 갯벌을 한순간에 매워 버리는 환경파괴 행위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3일 간의 짧은 시간의 캠프였고, 그 캠프 기간 동안 내내 새만금을 위한 활동을 하였던 것은 아니지만 새만금을 찾아갔던 제일 첫째날부터 둘째날 그리고, 셋째날까지 내 머릿속과 마음속에서는 새만금에서 살아 숨쉬던 작은 생물들이 갯벌과 함께 숨쉬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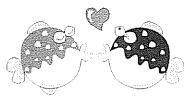
새만금과 헤어지는 날, 우리는 새만금 간척사업으로 인해 새만금이라는 갯벌과 그 갯벌 속에서 살고 있는 작은 생물들이 죽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지난 밤 우리의 손으로 직접 써 넣은 우리의 이름을 적은 장승을 세워놓고 왔다. 장승은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이 마을의 경계의 표시로 세워두기도 하였지만 또 다른 이유는 마을을 지켜주는 상징이기 때문이었다. 우리가 세워놓은 장승이 새만금을 지켜 주리라고 믿으며, 아쉬움을 뒤로 하고 새만금에서 돌아왔다. 새만금에서 집으로 돌아올 때, 언젠가는 새만금의 아름다운 모습을 다시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미 2006년 4월 21일, 9.9km의 제2호 방조제를 2.7km 끝막이를 완성함으로써 최종연결공사가 완료되었다. 이제는 그 때에 내가 보았던 새만금을 전시관을 통해 모형과 사진, 영상물로밖에 볼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내 마음 속에서는 항상 새만금과 새만금에서 살던 농게, 따개비, 갯지렁이, 낙지, 조개 등이 숨쉬고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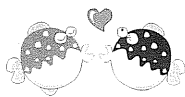
새만금과 같은 갯벌이 중요성을 인정받은 것은 60년대 이후의 일이다. 과학이 점차 발달하면서 더럽고 쓸모없어 보이는 갯벌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된 것이다. 갯벌은 육지와 바다를 이어주는 완충지대로써 각종 어패류의 서식지와 산란장을 제공하고 전체 어획량의 60%이상을 생산한다. 뿐만 아니라 오염 물질을 정화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갯벌의 기능 가운데 우리의 생명을 지켜 주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자연 정화 기능이다. 갯벌은 생물학적인 관점으로 보면 연구해 볼만한 가치가 있는 곳이다. 갯벌 속에는 멸종 위기에 처해진 생물 중 3분의 1이 서식을 한다고 하는데 이 생물들을 연구함으로써 그 생물의 보존은 물론, 자연 정화의 기능처럼 갯벌이 우리에게 주는 혜택을 개발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 이 생물들을 이용해 식량 자원이나 의학 자원으로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또한 그 특유의 경관 때문에 관광사업으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세계의 경우를 보면 갯벌의 진흙으로 마사지를 하는 머드팩 관광도 인기가 높아 관광산업으로서의 가치를 맘껏 뽑내고 있다고 한다.

이처럼 갯벌은 정화기능을 포함한 많은 기능을 보면 우리가 간척



사업을 해서 얻게 되는 이익의 몇 십배 또는 몇 백배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한다. 간척사업은 지금 새만금뿐만 아니라 앞으로 서해안의 수많은 갯벌들에도 행해질 수 있다. 그러나 그런 갯벌을 간척사업으로 없애는 것은 새만금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갯벌의 소중함을 모든 사람들이 깨달아서 새만금 외에 또 다른 갯벌이 간척사업으로 사라지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

우리의 갯벌이 언제까지나 이렇게 간척사업의 위험 속에서 머물도록 할 수는 없다. 앞으로 이 세상을 이끌어 나아갈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갯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다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가꾸어 나간다면 갯벌, 바다뿐만 아니라 지구와 우리의 마음마저도 푸르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숨쉴 것이다. 갯벌, 바다, 지구와 우리의 마음이 푸르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숨쉴 수 있는 그 날까지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구의 전 세계 사람들이 함께 손잡고 힘써 노력해나가야 한다.



## 내 친구를 살려주세요

태안 근흥초등학교 4학년

김도희

나의 가장 친한 친구는 '채석포 바다'입니다.

채석포 바다는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정말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태안에서도 꽃게가 잘 잡혀 유명한 곳입니다.

내가 채석포 바다와 친구가 된 것은 2년 전입니다. 인천에서 행복하게 살던 나는 부모님이 헤어지게 되시면서, 태안에 사시는 할아버지 댁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부모님과 헤어져 엄격하신 할아버지를 만났을 때 나는 정말 무서웠습니다. 겁이 많은 나는 아무 이야기도 못하고 집 밖에 나왔습니다. 5분도 안되어 드넓은 바다가 보였습니다.

“와~”

답답하던 마음이 확 풀렸습니다. 할아버지 댁에 이렇게 멋진 곳이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부터 난 채석포 바다와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도 몇 번씩 채석포 바다를 만나러 옵니다.

할아버지께 꾸중을 들은 날에도, 엄마가 보고 싶을 때에도, 친구와



싸웠을 때에도 늘 바다에게 털어놓습니다.

“오늘은 할아버지께 혼이 났어. 동생이 잘못된건데 맨날 나만 뭐라고 하셔. 할아버지는 아무래도 날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 그치?”

“쉬익, 쉬익~”

바다는 괜찮다며 나를 위로해 줍니다.

그러면 난 엄마가 더 생각납니다. 날 이곳에 보낸 엄마가 원망스럽지만, 잘 지내고 있는지, 밥은 잘 드시는지 걱정이 됩니다. 이번 달 마지막 주에는 꼭 오신다고 했는데 정말 오실지도 걱정입니다.

“바다야, 우리 엄마 잘 지내고 있지? 나 엄마가 정말 보고 싶어. 엄마가 내년부터는 우리 데리고 간다고 하셨는데 정말 기억하고 계시겠지? 바다 너가 좀 도와줘.”

“쉬익~ 쉬익~”

바다가 알았다며 대답합니다.

이렇게 채석포 바다는 내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유일한 친구입니다. 그런데 지난 여름 피서 때, 사람들이 많이 다녀간 이후로 내 친구가 아파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쓰레기를 아무 곳이나 버리고, 밤이면 밤마다 폭죽을 터치며 놀래키고 오염시키기 때문입니다.

내가 시간이 될 때마다 친구의 몸을 깨끗하게 치워주지만, 워낙 넓은 친구를 치우기에는 힘이 부칩니다. 치워도 치워도 쓰레기가 줄지 않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추억을 만들고 즐거움을 쌓아갈수록, 내 친구의 몸에는 멍이 더 커져갑니다.

이젠 많은 사람들이 내 친구를 더 이상 아프지 않게 했으면 좋겠





습니다.

“바다를 찾는 여러분들, 제발 가져온 쓰레기라도 다시 가져가면 안될까요? 그리고 바닷가에서 폭죽은 제발 터트려 주지 말아주세요. 제 친구를 살려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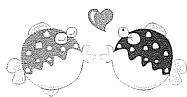




# 저학년부

- 나의 갯벌 친구들/장우형
- 바다사랑 뉴스/김현진
- 이어도를 사랑해요/김지수
- 하얗은 바다 지킴이/김태웅
- 갯벌 해수욕장에서/정고은
- 바다의 보물을 간직한 소중한 갯벌/채승범
- 바다의 소중한함/강민구





## 나의 갯벌 친구들

홍성 서해삼육초등학교 2학년

장 우 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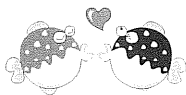
나는 대천에 살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족은 바다에 자주 가곤 한다.

바다에서는 여러가지 재미있는 놀이를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나는 갯벌 친구들과 노는 것을 좋아한다.

꽃게와는 술래잡기 놀이를 하는데 꽃게가 집에 숨으면 찾기가 어렵다. 그러나 꽃게는 어느새 궁금해져 머리를 쏙 내미는데 그 때부터 우리는 또 새로운 잡기 놀이를 한다. 겁이 많은 집게와는 얼음 팽 놀이를 하는데 항상 내가 먼저 움직여서 지지만 나는 바닷물이 찰랑 찰랑 발목에 찰 때까지 시간가는 줄 모르고 놀곤 한다.

갯벌친구들은 작지만 무척 빠르고 참 부지런하다. 쉼새없이 갯벌을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가 오염시킨 물과 땅을 깨끗하게 정화시켜 준다니 정말 고마운 친구들이다.

그런데 이런 친구들과 갯벌을 파괴하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들은 갯벌체험을 와서 조개를 잡는다고 소금을 왕창 뿌리고, 갯벌을 마구 밟고 다닌다. 또 어떤 어른들은 갯벌에 모래를 퍼부어 논과 밭이나



도로를 만들기도 한다고 부모님께서 말씀해 주셨다. 나는 나중에 사람들이 너무 도시를 많이 세우고 갯벌을 마구 파괴해서 지구의 땅과 물이 전부 오염될까봐 걱정이다. 그러면 갯벌 친구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병들어 죽게 되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는 바다와 갯벌에게 나는 무엇을 해 줄수 있을까 생각해 보았다.

작은 생물이라도 나는 해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바다에서 폭죽 놀이도 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폭죽에서 나오는 화약과 폭죽껍데기가 바다를 오염시킨다고 부모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해수욕장이나 바다에 가보면 폭죽쓰레기가 무척 많기 때문이다.

또 나는 갯벌의 소중함을 잘 모르는 친구들에게 꽃게와 집게 또 모래무지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친구들을 소개시켜주고 싶다. 또 그 친구들이 얼마나 부지런히 갯벌을 꾸미고 아름답게 가꾸는지 이야기 해 주고 싶다.

그러면 다른 친구들도 재미난 놀이도 해 주고 또 넘어져 올 때 찰랑찰랑 달래주기도 하는 바다와 갯벌친구들을 모두 아끼고 사랑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 바다 사랑 뉴스

부산 동삼초등학교 3학년

김 현 진

“안녕하십니까? 바다 사랑 뉴스에 김현진입니다.”

“요즈음 바다가 더러워지고 있다고 합니다. 바다에 있는 홍길동기자를 불러보겠습니다. 홍길동기자.”

“네, 바다에 있는 홍길동기자입니다. 여기가 확실히 바다이지만 사람들이 쓰레기통에 쓰레기 버리듯이 쓰레기를 버리고 있습니다. 푸른 바다에는 컵라면, 과자봉지, 유리병, 캔 등이 둥둥 떠다니고 있으며 넓은 모래사장은 쓰레기사장처럼 되어있습니다. 이 상태로 쓰레기를 치우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썩지도 않고, 고약한 냄새가 나서 근처도 못 갈 것입니다.

그리고 바다는 나만 보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다에게 받은 중요한 의무는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바다를 물려주는 것입니다. 꼭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바다를 물려줍시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산신령기자가 바다와 인터뷰를 하겠습니다. 산신령기자.”

“네, 산신령기자입니다. 바다씨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바다입니다. 제발 쓰레기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그럼 제가 더러워지고 물고기들이 아픕니다. 그리고 폐수를 깨끗한 물로 바꾸는데 돈 든다고 몰래 폐수 버리지 마세요. 그럼 물고기들이 죽고, 죽어서 떠있는 모습을 보기 싫고, 기형어들도 생기게 되는데 보기가 싫으니까요.”

“이번에는 저기 지나가는 등이 휘어진 할아버지 물고기와 인터뷰 하겠습니다.”

“나도 바다에 생각과 동일하다네. 내가 등이 휘어진 이유도 폐수 때문이고, 난 죽지 않았지만 가족들은 바다에 둥둥 떠서 죽었다네. 흑흑. 그래서 남은 물고기들은 언제 죽을지 몰라서 불안하게 살고 있지.”

“자, 보셨듯이 바다가 우리 때문에 손상을 입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바다를 소중히 생각하고 아름답게 가꾸시다. 이상으로 바다 사랑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 어 도 를 사 랑 하 요

제주 중앙초등학교 2학년

김 지 수

“바다 속은 파란 하늘, 물고기는 새처럼 빠르네!”

잠수함 속에서 바다 구경을 하던 7살 된 동생이 큰 소리로 말해서 모두 함께 웃었어요. 정말 바다가 파란 하늘처럼 맑고 아름다워 보였고 물고기 떼들도 요리 조리 빠르게 움직이는 게 신기해 보였거든요.

이번 여름방학에 가족끼리 마라도 유람선을 타고 잠수함도 탔어요. 제주도에 살긴 하지만 마라도에 가보고 잠수함도 타 본 것은 처음이라 아주 신기했어요. 마라도 가는 선착장에서 바다를 바라보니 꼭 형제들이 모여 있는 것 같다 해서 붙여진 형제 섬과 넘실대는 푸른 바다가 아주 멋있게 느껴져서 새삼 제주도에 살고 있는 게 자랑스럽게 생각 되었어요.

잠수함을 처음 탈 때는 혹시라도 물이 들어와서 사고가 나면 어떻하지 하는 생각에 아주 무서웠는데 막상 들어가 보니 아름다운 물고기 떼 들 이랑 산호들이 모여 있는 바다 속 세상은 아주 평화롭고 아름다웠어요. 우리들이 즐겁게 공부하고 생활하는 것처럼 초록 바다



속에도 어떤 질서나 규칙 같은 것이 있어서 그렇게 아름다움을 유지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전에 제주 바다 속에는 갯가지 진기하고 귀한 생물들이 많이 살고 있었는데 이젠 오염이 되고 사람들이 자주 잡아가는 바람에 바다 속의 진기한 생물들도 많이 자취를 감추었다는 선장님의 설명도 들었어요. 바다가 자주 오염되면 이렇게 평화로운 바다속의 세상이 없어질까봐 저는 무척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바다에 놀러와도 쓰레기나 나쁜 물질은 절대 바다에 버리지 않겠다는 결심도 하였어요.

유람선을 타고는 마라도에 가서 마라도 구경을 하였어요. 마라도에서 먼 바다를 가리키며 아버지께서는 저쪽에 전설의 섬 이어도가 있단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어도는 제주사람들이 말하는 전설속에 나오는 섬이래요. 이어도는 우리나라 것인데 요즘 중국 사람들이 자주 자기네 땅이라고 한다고 하시면서 우리 땅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지켜야 한다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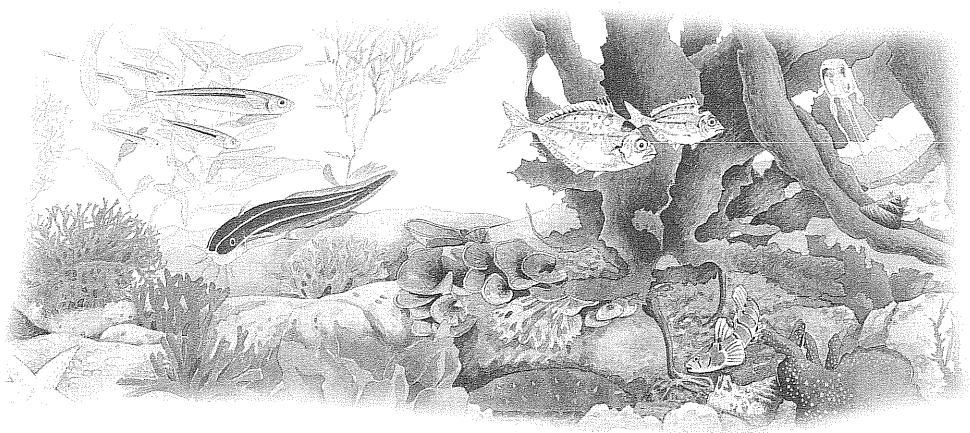
일본사람들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하고 중국 사람들이 이어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잘 지키지 않으면 먼 미래가 되면 혹시 다른 나라에서 우리 제주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자 너무 무서워졌어요. 잘 알지 못하고 힘이 없으면 뺏긴다고 아버지께서 말씀해주셨거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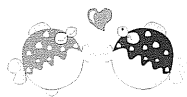
무궁무진한 자원이 많이 있지만 한번 오염되면 다시는 찾을 수 없는 것이 자연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아름다운 바다로 둘러싸인 제주에 사는 어린이니 만큼 더 바다를 잘 알고 보전해서 지켜야



졌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생 말처럼 바다가 더 파란 하늘같도록 바다 속에 더 많고 진기한 물고기들이 새처럼 자유롭게 헤엄쳐 다녔으면 좋겠어요. 바다가 없으면 우리 모두 살 수 없으니까요.





## 하찮은 바다 지킴이

인천 동명초등학교 1학년

김태웅

“와, 여름 방학이다.

엄마, 빨리 할머니 댁에 가요. 빨리 빨리~”

작년 여름, 우리 가족은 선재분교 옆에 있는 할머니 댁에서 방학을 보냈었다. 처음에 그 곳은 게임도 없는 아주 유치한 곳이었다. 동네길이 가파르고 좁아서 가지고 갔던 인라인 스케이트도 탈 수 없었다. 또, 날아다니는 벌레들은 얼마나 많은지 땅위에도 담벼락에도 여기 저기 있었다. 동생과 나는 너무도 시시한 이 곳이 정말 싫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와 아빠가 바닷가에 놀러 가자고 하셨다. 나는 그런 곳에 가는 것이 귀찮기만 했고 날씨도 너무 더워 짜증만 났었다. 아빠의 강요와 할머니의 어우르는 소리에 못 이겨 수영복과 물안경을 챙겨 들고 따라 나섰다. 막상 그 곳에 가서 나는 그만 입이 딱 벌어지고 말았다. 동그랗게 이어진 섬 가장자리를 따라 파도가 ‘잘랑 잘랑’ 빠끔거리고 있었고, 우리가 놀기에 충분한 모래 사장이 혼자 누워 있었기 때문이었다. 물론 용인에 있는 캐러비안 베이처럼



물놀이 기구는 없었지만 무엇보다 소독 냄새가 나지 않아서 좋았고, 조용하고 깨끗한 이 곳이 내 맘에 쏙 들었다. 그런데,

“으악, 할머니. 벌레야, 벌레~”

“괜찮아. 태웅아. 이 벌레는 바로 바다를 지키는 파수꾼이란단다. 그러니까 이 벌레가 있다는 것은 이 바다가 아직은 깨끗하다는 증거야. 바닷가에 와서 이 벌레가 없거나 죽어 있다면 그 바다는 죽은 바다니까 태웅이가 물놀이를 하면 안되는 거지.”

“그럼, 지금은 물 속이 깨끗한 거야?”

“그래, 그래. 어서 들어가 놀아 보렴. 물이 우리 태웅이 피부나 코에 들어가도 깨끗할 테니까.”

‘침병 침병, 꾸룩~꾸룩’

나는 마음 놓고 동생이랑 하루 종일 바다에서 놀았다. 그리고, 해가 석마루에 걸릴 때쯤에야 바다빛깔 입술을 하고 물에서 어슬렁거리며 기어 나왔다. 엄마가 걸쳐주는 타월을 두르고 쪼그리고 앉아서 는 할머니가 잡아주신 바다벌레를 들여다보았다. 자꾸 10개도 넘는 다리를 꼬물락 거리는 것이 징그러웠지만 자꾸 보니 바둥바둥 움직이는 모습이 귀여운 것 같기도 했다.

‘요렇게 하찮은 녀석이 바다 지킴이라니.. 대견한 걸.’

“할머니, 이 녀석을 집에 가지고 가면 안되요? 네? 기르고 싶어요.”

“안된단다. 도시에 가지고 가면 죽기 십상이지.”

“그럼, 어떡해요. 잉.”



“이러면 어떻게겠니? 할머니 집 마당에 있는 빈 절구에 바닷물을 가득담아 놓고 길러 둘테니. 다음에 할머니 집에 와서 보거라.”

“네, 좋아요.”

그 바다 벌레를 만나는 날이 마침내 돌아온 것이다. 방학이 되어 다시 우리가족은 할머니 댁으로 가니까 말이다.

“할머니, 할머니, 바다 벌레는요?. 내 바다 벌레는 어디 있어요?”

허겁대는 내 목소리에 할머니가 허허 웃으시고는 손가락으로 마당 귀퉁이에 있는 절구를 가리키셨다.

있다. 해초들 사이에 내 바다 벌레가 있었다. 헤헤.

‘잘 있었니? 친구야.’

“할머니, 또 바닷가에 놀러 가요. 네?”

“태웅아. 어떡하니? 이번 여름에는 물놀이를 할 수가 없어. 서해안 가까이에 기름탱크가 터져 물이 많이 오염되었단다.”

“정말이에요? 아빠 같이 가봐요. 네?”

바닷가에 가보니 무슨 띠와 통 같은 것들이 저 멀리 바다에 둥둥 떠 있었다. 나는 서둘러 바닷가 주변을 살펴보았다. 바다 벌레가 있는지 없는지.

역시, 바다 벌레가 한 개도 없었다. 아니 있긴 있었는데 검은 때가 끼여 죽어 있었다. 때가 얼룩덜룩 하게 낀 조약돌들과 함께.

바다 지킴이들이 없어졌어. 바다지킴이들이 없으면 바다가 죽은 거야.

그럼 태웅이는 물놀이도 못하고 물 속 친구들도 물고기도 없는



거야.

비어 있는 바다는 무서웠다.

아무도 없는 바다 물 속이 더 무서웠다.

태웅이와 아빠는 우리 바다가 아픈 것을 빨리 고치고 다시 낚도록 바닷가 주변의 쓰레기를 치웠다. 이렇게 하면 소라와 바다벌레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기뻐할 것 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바다벌레야,

바다 지킴이 바다벌레야.

내년에는 꼭 다시 만나는 거야. 알겠지? 꼭.





## 셋별 해수욕장에서

고창 성내초등학교 2학년

정 고 은

저는 여름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날씨가 더워지기 시작하면 종아리와 팔꿈치에서 아토피가 생겨서 가려워지고, 목을 마르게 하는 것이 싫었어요. 하지만 이번 여름은 정말 즐겁고 행복한 날들이었습니다.

이번 여름에 우리 가족, 큰 아빠 가족, 고모네 가족과 함께 바다로 갔어요. 거기는 바로 이름처럼 예쁜 셋별 해수욕장이었습니다.

엄마와 큰 엄마는 민박집에서 짐을 정리하고 아빠, 큰아빠, 고모부와 내 남동생 두 명, 친척들 동생 다섯 명과 함께 바다 물속에서 놀았어요. 나는 피카추 튜브를 타고 밀려 왔다 밀려가는 바다 물과 함께 신나게 놀았어요. 큰 파도가 밀려오면 몸이 둥 떠서 내 몸이 아주 가벼워져서 날아 갈 것 같았어요 고모부는 큰 보트를 뒤집어서 미끄럼틀을 태워주었는데 놀이터에서 타던 미끄럼틀을 보다 백배는 더 재미있었어요. 바다는 더위를 잊게 해 주었어요!

둘째 날에는 갯바위에서 꽃게를 잡았어요. 작은 꽃게들을 달리기 시합을 시켰는데 선으로 안가고 자꾸 다른 곳으로 갔어요. 그런데





갯바위 사이사이에는 꽃게랑 조개도 있었지만 쓰레기도 많았어요. 껌 빨는 거, 사탕 막대기, 과자 비닐 아주 다양했어요. 그리고 바다 물이 많이 빠진 모래에는 음료수 캔, 깨진 병, 신발, 큰 막대기, 플라스틱 그릇, 첫째 날에는 바다 놀이에 폭 빠져 못 봤는데 둘째 날에는 쓰레기만 보였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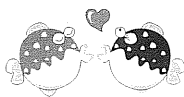
사람들은 참 이상해요! 이렇게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바다에게 왜 아무렇지도 않게 쓰레기를 버릴까요?

내가 버리지 않으면 어느 바다나 깨끗할 텐데요 엄마는 저에게 고은아 이 섯별해수욕장은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그나마 이 정도로 깨끗하단다라고 하셨어요. 그럼 사람이 많이 오면 을수록 바다가 더러워진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먹은 과자 봉지, 아이스크림 막대와 비닐을 버리지 말고 비닐을 하나 준비해서 거기에 넣으면 되잖아요?

어른들도 마찬가지로 가져온 음식물 쓰레기를 해수욕장 아무데나 버리지 말고 꼭 분리수거해서 버리세요. 그럼 더러운 냄새도 안 나고 바다에 과일 껍데기도 떠다니지 않을 거예요

마지막 날까지 우리 가족 모두는 쓰레기를 하나도 버리지 않았어요. 모래에 있던 여러 가지 쓰레기를 검은 비닐로 가득 담아서 쓰레기장에 버렸어요. 내년 여름에 또 바다에 올 거니까요.



## 바다의 보물을 간직한 소중한 갯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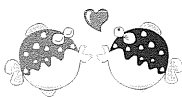
인천 담방초등학교 3학년

채 승 범

“엄마, 빨리 일어나세요.”

여름방학이 끝나갈 무렵 어느 일요일 날 아침, 다른 날 같으면 엄마가 깨울 때까지 안 일어나던 내가 평소와는 다르게 새벽부터 일찍 일어나서 엄마를 깨웠다. 가족과 함께 갯벌 체험을 하러 가기로 약속한 날이기 때문이다. 처음 가는 갯벌 체험이라서 일주일 전부터 손꼽아 기다렸다. 내 마음을 알았는지 하늘도 파랗고 맑아서 날씨도 좋았다. 바다위에서 갈매기들이 모여 끼룩끼룩 울면서 아기울음 소리를 내면 뱃머리를 때리는 파도소리가 철썹철썹하고 대답을 하는 것 같았다. 내가 주는 과자와 빵을 받아먹느라 배 가까이로 날아오는 갈매기도 신기했고, 우리들을 반기는 것 같아 정말 기분이 좋았다.

배를 타고 가는 동안에 엄마께 갯벌은 왜 생기는지 여쭙어 보았다. 갯벌은 바닷물이 들어오고 나갈 때 밀물과 썰물의 차이가 큰 곳에 생기는 바닷가 벌판이라고 가르쳐주시면서, 갯벌이 생태 환경을 깨끗하게 해 주고 하천과 해수의 정화, 홍수 조절도 해주고, 바다로



들어오는 나쁜 오염 물질을 갯벌에서 걸러 준다는 것도 알려주셨다. 이러한 갯벌의 소중함에 대해 말씀하시고는 갯벌을 잘 지키고 보존해야 한다고 하셨다.

제주도에 도착한 후 엄마와 나는 조심스럽게 갯벌 속으로 들어갔다. 진흙같이 미끄러운 검은색 땅속에 발이 쑥쑥 빠졌다. 갯벌 여기 저기에는 조그만 구멍이 송송 뚫려 있었는데 그 속에서 게들이 살고 있었다. 나도 조심조심 게 구멍을 나무 막대기로 파 보았더니 돌 밑에 숨어있는 게가 나왔고 조개도 있었다. 참 신기했다.

“엄마, 조개 잡았어요, 조개!”

“여기에는 게도 있어요!”

동생도 크게 소리치며 기뻐했다. 우리는 신기해하면서 조그만 게 한 마리를 잡았다. 그런데 다리 하나가 부러져서 없었다.

“그런데 이 게는 다리가 하나 없어요. 불쌍해요!”

이상하게 생각되어 엄마께 여쭙었더니 사람들이 조심하지 않고 함부로 다루었거나 무심코 걸어갈 때 밟혀서 그렇게 다리가 부러진 거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너무 불쌍한 생각이 들어서 그 말을 들은 후부터는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조개와 게를 다치지 않게 하려고 조심조심 신경쓰면서 걸었다.

우리 가족은 조개를 캐느라고 시간가는 줄도 몰랐다. 갯벌에는 게와 조개, 굴, 갯지렁이 등 여러 가지 바다생물들이 숨어 있었다. 마치 보물찾기를 하는 것처럼 재미있고 신나는 ‘바다의 보물찾기’였다. 바다가 갯벌 속 여기저기에다 조개와 게들을 내가 알지 못하게 꼭꼭



숨겨놓은 소중한 보물 같았다.

요즘 땅을 넓히기 위해 갯벌을 줄여서 우리나라의 갯벌이 자꾸 줄어들enda고 한다. 육지와 바다가 만나는 갯벌은 소중한 바다 생물들이 사람들과 함께 서로 도움을 주면서 살아가는 곳이고 바다의 보물을 간직하고 있는 곳이다. 하지만 갯벌이 없어지면 바다가 오염되고 환경도 더 오염되며 철새들도 찾아오지 않게 된다고 하니 걱정스럽다. 그래도 내가 사는 인천 가까운 곳에는 갯벌이 아직 많이 남아있어서 참으로 다행스럽다.

나는 이번 갯벌 체험으로 갯벌에도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회처럼 여러 종류의 바다 생물들이 함께 어울려 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그 생물들로 인해 갯벌이 깨끗해지고, 나쁜 물질이 바다로 나가는 것을 걸러 주어 바다를 보호해준다는 것도 알게 되어 바다생물들의 소중함도 깨달았다. 바다생물들이 건강하게 잘 살아서 앞으로도 우리의 바다를 깨끗하게 지켜주었으면 좋겠다. 특히 다리를 잃은 조그만 게처럼 다시는 바다생물들이 사람들 때문에 아픔을 겪지 않고 행복하고 건강하게 잘 살기를 빌면서 우리의 소중한 바다와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시키지 않도록 노력해야겠다고 결심했다.

저물어 가는 해를 보면서 함께 놀던 조개와 게들을 풀어주니 나의 소중한 바다 친구들이 나를 보고 자기들을 놓아주어서 고맙다고 인사를 한다. '다음에 또 다시 만나...' 하고 손을 흔드는 것 같았다.

오늘 밤 꿈에는 갯벌에 가서 그날 함께 놀던 게의 다리도 고쳐주고 조개들과 춤추고 게들과 뛰어놀고 싶다.



## 바다의 소중함

군산 군산남초등학교 3학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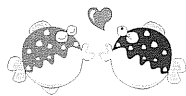
강민구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볼 때 비가 많이 내리는 편이라고 한다. 큰 강물이나 바닷가에 있는 물도 원래는 땅속에 스며들었던 비가 땅속에서 깨끗하게 걸러지고, 그 후에 올라온 계곡의 작은 물 줄기부터 시작되는 것이라고 했다.

나는 이번 방학 때 물에 대해서 많은 것을 보고 배웠다. 내가 갔다 온 곳은 청계산 계곡, 광릉수목원, 도립천, 강화도 갯벌이다. 우선 그 곳에 가기 전에 나는 엘레오노레 슈미트가 쓴 ‘물의여행’을 읽어보았다. 어머니께서 읽으라고 하셨기 때문에 억지로 읽은 것이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그 책을 먼저 읽고 여행을 갔기 때문에 물에 대해 좀 더 많이 알 수 있었다. 그 책에는 작은 물방울이 하늘에서 모여 구름이 되는 것부터 물이 여러 곳을 거쳐서 바다가 되기까지의 이야기가 있었다. 그 책을 읽고 나니 우리가 다닐 곳이 더욱 궁금해졌다. 그래서 부모님께 빨리 갈 수 없냐고 조르다가 혼이 나기도 했다.

처음에 내가 간 곳은 청계산에 있는 계곡이다. 물이 맑아서 물 속



에 있는 모래나 돌맹이가 다 보이는 1,2급수의 물이라고 하셨다. 잠자리 유충이랑 날도래 애벌레, 하루살이 유충, 각다귀 이런 것들을 많이 보았다. 너무 신기해서 물놀이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곤충만 찾아 다녔다. 이렇게 여러 가지 신기한 생물을 볼 수 있었던 것은 청계산 계곡에 오염이 덜 되어 있기 때문인 것 같았다.

두번째로 간 곳은 ‘광릉수목원’이었는데 계곡 물이 청계산 계곡보다 덜 깨끗해 보였다. 여기에서는 각다귀와 남도래 애벌레, 다슬기, 피라미가 살고 있는데 이끼도 조금 끼어있었다. 역시 이곳의 물은 2급수라고 하였다.

세번째로 강화도 갯벌에 갔는데 갯벌과 수초는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해주는 정화 작용이라는 것을 한다고 했다. 그 갯벌은 학습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관리를 해주는 사람이 따로 있기 때문에 깨끗한 것이라고 했다. 다른 갯벌처럼 쓰레기나 병조각은 하나도 안보여서 신발을 벗어도 걱정이 없었다. 나는 즐겁게 뛰어 다녔다. 모든 물들이 합쳐져서 이루어진 그 갯벌에는 갯지렁이, 민챙이, 칠게, 밤게, 콩게가 살고 있었다. 거기에 있는 민챙이가 너무 귀여워서 가지고 왔는데 죽어버렸다. 참 불쌍하고 미안했다. 다시는 생명이 있는 동물이나 식물을 절대 가져오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도림천에 갔는데 다리 밑쪽에 거품이 뽀글뽀글 올라오고 있었다. 쓰레기가 없는 조금 떨어진 곳에는 물고기랑 벼룩말이 살고 있고, 고여있는 더러운 물에는 거머리와 실지렁이가 살고 있었다. 그리고 여기저기에 잠자리가 죽어서 나무 가지나 돌 위에 걸려



있었다. 도립천은 3급수의 더러운 물이다. 지금까지는 깨끗한 1,2급수만 갔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더러운 곳을 보게 되었다. 냄새도 나는 것 같고 기분이 좋지 않았다. 그러나 저 멀리 다리 밑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놀고 있었다. 참 이상해 보였다.

나는 죽은 잠자리를 보고 그 잠자리들이 왜 죽었을까 하고 궁금해했다. 그 이유는 잡아먹은 먹이가 오염되었거나 주변의 환경이 좋지 않아서 이었던 것 같다. 더러운 물에도 생각보다 많은 생물이 살고 있었다. 살고있는 종류는 많이 달랐지만... 고여서 썩은 4급수의 물을 보았을 때는 마치 구역질이 날 뻔했다. 나는 지구의 물이 많은 줄 알고 막 썼지만 그렇지 않다고 한다. 물은 많지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물은 100개중 1개 정도라는 것이다. 또 우리 몸의 물은 70%이다. 그 중 1%라도 부족하면 제대로 활동하지 못한다.

사막 사람들이 더운데도 긴 옷을 입는 이유도 햇빛이 몸에 있는 물을 빼앗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이제부터는 나도 물을 소중하게 아껴 쓸 것이다. 또 물을 마실 때는 적당히 따라 마시고 세수 할 때는 물을 받아놓고 쓸 것이다. 물을 아껴 쓴다는 것은 작은 것부터 실천함으로써 시작된다는 것을 이번 여행을 통해서 알게되었다. 그리고 한번 더러워진 물을 깨끗하게 만드는 것은 아주 어렵다는 일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 입상자 명단

### • 금상 •

젊은 어부 / 마산 삼계초6 허해경

### • 은상 •

나의 갯벌 친구들 / 홍성 서해삼육초2 장우형

바다를 빌렸어요! / 인천 굴포초4 선지은

### • 동상 •

바다사랑 뉴스 / 부산 동삼초3 김현진

이어도를 사랑해요 / 제주 중앙초2 김지수

사랑해요! 제주바다 / 제주 새서귀포초4 오현지

꽃게의 머릿속 바다 / 군산 신시도초5 박민지

### • 가작 •

하얗은 바다 지킴이 / 인천 동명초1 김태웅

갯벌 해수욕장에서 / 고창 성내초2 정고은

바다의 보물을 간직한 소중한 갯벌 / 인천 담방초3 채승범

아빠의 바다 / 진해 도천초6 김지현

금태가 된 명태 / 속초 청대초6 정연비

내 마음속에서 숨쉬는 새만금 / 대구 성산초6 박수현

### • 특별상 •

바다의 소중함 / 군산 군산남초3 강민구

내 친구를 살려주세요 / 태안 근흥초4 김도희



---

## • 입선 •

내가 사랑하는 바다, 나를 사랑하는 바다 / 완주군 용봉초1 박현우

잠수함 안에서 본 바다 / 고양 백마초1 서민준

신비한 바다 / 대구 장산초1 박수민

바다 친구에게 / 신안군 팔금초1 강민국

바다 해적을 잡자 / 마산 삼계초1 최민동

바다는 쓰레기통이 아니예요 / 서울 동교초1 임혜림

눈물 흘리는 갯벌 / 고양 일산초1 임나경

바다속에 로봇 기지를 만들테야! / 고양 주엽초1 이지형

아빠가 가르쳐 주신 바다사랑 / 인천 담방초1 채정범

바다도 아픈걸 알아요 / 제천 의림초1 안도연

힘내라 바다야! / 수원 수성초1 장승하

갯벌이 좋아요 / 구미 도봉초2 문해림

쓰나미와 우리가족 / 군포 당동초2 김재우

우리가 사랑하고 보호해야 할 바다 / 거제 외포초2 김예지

청상아리가 사라지면.... / 제천 화산초2 서재덕

바다에서 아버지와 함께 지냈어요 / 대전 내동초2 윤지은

바다가 더워요 / 화성 석천초2 유현주

바다체험 / 대구 북명초2 조근우

바다 속 체험 / 부산 대교초2 박경현

미운 바다 바람 / 여수 경호초 소경분교장2 박세연

내가 바다를 사랑하는 이유 / 용인 대청초2 서민석

바다야 미안해! / 여수 좌수영초2 정승현

우리의 바다 / 부산 양성초2 이동현  
바다의 꿈 / 부산 양성초2 이예은  
보고 싶은 바다에게 / 인천 소래초2 양다현  
우리집처럼 지켜주고 싶은 바다 / 이리 영등초2 유장우  
바다야 미안해, 그리고 힘내! / 인천 인수초2 주효경  
소중한 바다 / 시흥 진말초2 최다빈  
나의 소중한 갯벌 친구들 / 서울 영훈초3 민동주  
바다는 우리가 살게 될 생활의 터 / 군산 흥남초3 장지호  
바다 속 물고기가 되어 / 거제 양지초3 양지윤  
정다운 바다 / 울산 연암초3 김준형  
위대한 스승 바다 / 산청군 산청초3 정유정  
바다의 파란돌 / 울진 온정초3 김혜진  
내 생각속의 바다 / 칠곡 약동초3 채다영  
고성 상죽암 바닷가에서... / 대구 성산초3 전봉수  
압해도 바다를 깨끗하게 하자! / 신안군 압해동초3 서강현  
아름다운 솔섬 / 완주군 용봉초3 송현규  
신비한 바닷길 / 제천 화산초3 지은정  
우리의 바다를 우리 손으로 지키자 / 고양 주엽초3 이규리  
바다에게 / 부산 명장초3 정일현  
몸살 앓는 바다 우리가 살리자 / 인천 소래초3 현지원  
갈매기의 꿈 / 괴산 명덕초3 정지윤  
나가자 바다로! / 부산 구평초3 김형찬  
즐거운 바닷가 / 부산 동주초3 강민지  
진짜 아름다운 바다 / 당진 원당초3 이명성  
바다가 아파요 / 안산 와동초3 심민용  
나의 사랑 바다 / 서울 미동초3 이정현  
아틀란티스와 이어도를 찾아 / 인천 먼우금초3 곽상훈

갯벌과 친구하기 / 여수 한려초3 황민영  
고마운 바다야, 내가 아껴줄께! / 서울 원명초3 한아로  
바다는 우리의 보물 / 화성 동학초4 권하은  
우도의 바다 / 대구 장산초4 신유진  
소중한 우리의 바다를 지키자! / 서울 이문초4 장지연  
소중하고 고마운 바다 / 고창 성송초4 강성훈  
바다를 사랑해 주세요 / 홍성 신당초4 김미래  
갯벌 여행 / 인천 가림초4 이재준  
아파도 말할 수 없는 바다 / 인천 안남초4 채원준  
바다가 힘들어 해요 / 보성군 보성초4 강지원  
바닷가에 다녀와서 / 당진군 기지초4 김태훈  
여름바다의 풍경 / 울산 월계초4 임소민  
우리들의 아름답고 소중한 바다 / 인천 함박초4 오예린  
신비하고 소중한 바다 / 안산 와동초4 김예지  
우리집 양식장 / 진도 조도초 상도분교장5 문혜지  
바다에서 사는 생물들 / 서울 신동초5 이웅범  
바다는 우리의 생명 / 함평군 손불서초5 박선아  
바다에는 인어공주가 산다 / 파주 문산동초5 장우람  
바다의 마음을 연 아이들 / 대구 남산초5 송명진  
바다를 사랑한 소년 / 여수 구봉초5 허지혜  
자원의 보고 바다를 살리자 / 여수 성산초5 고명준  
돌돔, 돌이 / 인천 안남초5 문준익  
바다를 사랑하는 사람 / 창원 안민초5 박소현  
바다야, 고생했어 / 대전 대흥초5 이정아  
푸른 보석 / 인천 담방초5 김지수  
바다의 소중함 / 용인 갈곡초5 김태한  
우리의 미래를 아름다운 바다와 함께 합시다 / 서울 석촌초5 최주연

안면도 바닷가를 다녀와서 / 고양 문춘초5 권택현  
바다의 소중함 / 부산 수영초5 우가희  
바다의 꿈 / 전주 양지초5 김민하  
하루하루 변해가는 우리의 보물 바다 / 인천 부마초6 김성민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 제주 한림초6 고주옥  
바다도 자연이에요 / 대구 남도초6 남조은  
세상의 어머니, 바다가 아파요 / 익산 어양초6 김경은  
가족과 함께 한 바다의 교훈 / 대전 대흥초6 이소연  
바다에서 있었던 일 / 서울 방화초6 최재호  
바다의 눈물 / 인천 화도초6 서미지  
울고 있는 바다 / 제주 북춘초6 고희아  
바다 속 숨은 보물을 상상하며... / 울산 명정초6 박영진  
우리의 미래 그리고 후세 / 강릉 남산초6 정다운  
죽어가는 갯벌! 이대로가 좋은가? / 사천 대성초6 강지수  
바지락 조개에게 / 인천 안남초6 강성경  
바다, 내 마음속 엄마 품 같은 / 부산 덕성초6 이찬호  
바다사랑은 자연에 대한 예의래요! / 인천 굴포초6 선예은  
소중히 보존해야 하는 바다 / 고창군 고창초6 이동주  
바다가 웃는다 / 마산 삼계초6 성기은  
숨쉬는 바다를 꿈꾸며... / 부산 광일초6 이승훈  
제주 바다 이야기 / 제주 도남초6 윤지혜  
바다는 숨쉬고 싶어요 / 대전 성천초6 백아름  
우리의 미래는 바다에 있다! / 대구 성산초6 김다운  
지구의 보물 창고 바다를 지키자 / 서울 구산초6 안원모

제1회 어린이 바다사랑  
글짓기 공모전 수상 작품집

<비매품>

---

인쇄일 2006년 11월 3일

발행일 2006년 11월 3일

발행인 해양경찰청장

편집인 해양경찰청 감시과장

발행처 해양경찰청 감시과 (TEL. 032-835-3126)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3-8

인쇄처 해양문화사 (TEL. 2272-5193)

---

